

이사전행 의혹 내홍 광주국제영화제 재판 짜야

조직위 환골탈태 선언 불구
책임지는 사람 없어

해임이사측도 영화제 준비
市 “이상태론 지원 어렵다”
을 영화제 개최 불투명



상임이사 전행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7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 영화제조직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A상임이사 전행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골탈태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지는 이가 없어 개혁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여기에 현 조직위가 문제가 있다며 A이사 측도 영화제 개혁위를 구성하고 따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광주시가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영화제 개최도 불투명하다.

특히 지역 문화계에서는 당장 영화제 개최에만 급급해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완벽하게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직위는 7일 영화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의 문제를 명명백백히 드러내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A상임이사 직원의 임명은 물론 업무 진행을 임의로 하자 스텝들이 문제를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어 A이사를 해임하게 된 것”이라며 “한 개인의 과욕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영화제 준비를 위해 최근 전문 경영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조직 개편과 함께 영화 관련 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해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분석,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제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이사 등이 사퇴한 뒤 처음부터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정환담 이사장은 “개인으로는 지금이라도 물러날 수 있지만 지금 그만 두면 무책임하다”며 “영화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신명을 바쳐 살려 가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직위측은 이날 지난해 보다 한달 늦은 6월 중순께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영화제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올해 영화제가 확보한 예산은 시비 3억원. 하지만 시측은 현 조직위측이 제출한 정관에 하자가 있다며 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다 현 조직위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A이사측도 영화제 준비를 위해 정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광주시정 관계자는 “정관에 따르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변경은 허가할 수 없다”며 “양측이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재 조직위측에 보조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조직위원회가 완벽하게 꾸려져야 지원되는데 현 조직위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으로부터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된 A이사는 자신의 해임을 비롯해 선임 이사 선임, 조직위원회 구성은 모두 정관에 어긋난 행위라며 현 조직위원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8일 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과 향후 영화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이사는 “일방적인 해임과 고소 등으로 명예가 훼손 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영화제가 명실공히 시민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 조직위 사람들도 모두 물러난 후 객관적인 인사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계 인사 B씨는 “진정한 개혁 없이 영화제 개최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광주국제영화제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새 판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느낌을 그리는 재미...광부화가의 미술교육

8일~17일 은암미술관 '황재형, 회화의 조건-복귀4' 프로그램



태백미술연구소 소장인 황재형(가운데) 작가가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

태백미술연구소(소장 황재형)가 8일부터 17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황재형, 회화의 조건-복귀4'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복귀'는 삼태기로 조금씩이나마 흙을 날라 쌓으면 산을 이룬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진실을 쌓는다는 의미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미술의 기본 개념이나 기법을 설명하는 상투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있다.

참가자들은 점, 선, 면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배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의 실제 모습보다는 주관적 해석을 더한 작품 제작 기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아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느낌을 그려 보는 시간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 작가로 불리는 보성 출신 '광부화가' 황재형 작가가 강사로 나선

다. 중앙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황씨는 태백 황지탄광에서 광도 매물 사고로 사망한 광부 김봉춘씨의 작업복을 극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 '황지330'로 중앙미술대전에서 입선, 데뷔했다. 이후 1982년 태백으로 내려가 탄광촌과 지역 사람들의 삶을 화폭에 담으며 주목을 끌었다.

또 윤범모 미술평론가, 이상민·홍영숙 작가, 임소영 디자이너, 장현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장현자씨 등 태백미술연구소 소속 미술교사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참가자들과 9박10일을 함께하며 미술을 통한 주변 사물의 재인식 등 보고 느끼고 알아가는 재미를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태백미술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동구 광주해와문화예술공간에서, 2015년 1월에는 양림미술관에서 '미술캠프'를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문의 033-552-992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성인호 화백 개인전 8일~31일 보성 '붓재'

소현(蘇軒) 성인호 화백이 8일부터 31일까지 보성 복합문화공간인 '붓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성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녹차와 관련된 그림과 도자기 15점 등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그동안 성 화백은 산수화, 연과 달마도, 호랑이 그림, 풍속화, 탕화 등을 소재로 작품활동에 전념해 왔다. 칠순이 넘는 나이에 도 비구상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에 제작한 산수화, 탕화를 비롯해 이용부 보성군수가 작사한 보성 아리랑 노래 배경을 담은 도자기도 출품한다.

성 화백은 "50여년을 고뇌와 번민 속에서 창작이라는 아픔을 수없이 겪으며 나름의 인생을 반추해 보는 전시"라며 "고착된 사고 보다



'가을 폭포'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예술적 감수성을 추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해남 출신인 성 화백은 남동 허건과 현당 김한영, 유산 민경갑을 사사했고 제26회 한국미술대전 입선, 제1회 백제 미술대전 종합대상 수상, 세종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 미술대전 비구상부분 입선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다.

문의 061-850-5955. /김용희기자 kimyh@

광주 동구 주안갤러리 미술관으로 재탄생 31일까지 미술관 결과보고展



조세민 작 '고양이 눈을 가진 잉어'

광주 동구에 위치한 주안갤러리(관장 이종희)가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2014년 개관한 주안갤러리(약 165㎡ 규모)는 1년여 동안 다양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정식 미술관으로 승인받았다.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는 상업적 목적 여부다.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인접한 주안미술관은 그동안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이끌어왔다. 이번에 미술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적인 활동을 계속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젊은 작가들 위주로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과 타지역 작가들의 교류도 이룰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과 광주

작가의 2인 콜라보레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청년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조선대학교 박상호(조선대 미술대학장) 교수를 명예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종희 관장은 "미술관이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자주 선보여 관람자가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술관은 지난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미술관 결과보고'전을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양재영, 김용안, 최미연, 골드윈, 해오, 오수진, 조세민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해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223-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소설집

부족함이 가득하다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에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적 방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하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난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학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이메일 simmian21@harmail.net munhakdle@harmail.net

문학들